

'489억 새 단장' 광주 무등야구장... '안전·편의시설' 불만은 여전

선수대기실·그물망 등 불만 목소리 높아 시 "사용자 의견 존중, 다양한 방안 고민"

"타자가 친 야구공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만큼 안전시설 좀 보강해주세요" "선수 대기실(더그아웃·dugout)이 임시 시설 수준이네요"

세단장을 마치고 최근 시민 결의로 되돌아온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 시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무등경기장 야구장이 2016년 시작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지난 6월 19일 재개장했다.

광주시는 기능 축소와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무등경기장 리모델링사업에 시비 352억 원·국비 137억 원 등 489억 원을 투입, 야구장과 공원이 어우러진 스포츠 테마공간으로 조

성했다.

재개장 두달여 제가 지난 현 시점, 새 야구장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아쉬움과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이다.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얼마전 야구장을 둘러봤다. 선수대기시설인 더그아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판넬 몇개 붙여서 그물망만 설치한 시설이었다. 의자는 물론 야구용품 보관대 하나도 없었다. 말도 안되는 임시시설 수준이었다며 시설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장 안쪽으로 튀어나온 선수대기실 구조와 낮은 그물망, 그물망 미설치 장소를 지적하는 민원도 제기됐다.

전력질주와 함께 파울볼을 잡아야 하는 상

황에 이 같은 시설 배치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파울볼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원인 B씨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파울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야구장 내부를 비롯해 주변 산책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 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야구공에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체육회가 새 경기장을 관리·운영한다. 위탁계약 절차가 마무리되면 시체육회가 선수대기실 내 필요 물품 등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물망과 선수대기실 위치 문제는 사용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며 "야구장과 공원이 어우러진 문화·체육시설이다보니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다.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 북구 임동 무등경기장 전경. 경기장 주변에 산책로와 공원이 조성돼 있다.



전남도가 박창환 정무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독일 박물관 강변축제 메인강변 주무대 개막식에서 '전남 관광 유럽지역 누리소통망(SNS) 서포터즈 위촉식'을 진행했다. (사진=전남도 제공)

유럽 최대 축제장서 전남 관광 매력 알려

프랑크푸르트 박물관강변축제서 한국 대표 홍보관 운영

'전남 방문의 해'를 운영 중인 전남도가 매년 200만 인파가 몰리는 유럽 최대 축제인 '프랑크푸르트 박물관강변축제'(Frankfurter Museumsuferfest)에 참가해 해외 관광객 유치 활동을 펼쳤다.

27일까지 3일간 열린 '2023 프랑크푸르트 박물관강변축제'에는 한·독 수교 14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가 주빈국으로 초청됐고, 전남도가 국내 자치단체를 대표해 참석했다.

축제 첫날인 25일 전남도는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기업 간 거래(B2B) 행사에 참가해 현지 여행업계와 미디어를 대상으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비롯해 섬·해양·생태 등 전남의 행정 관광자원과 한국의 부의 전남을 홍보했다.

행사장의 중심인 박물관강변축제 메인강변 주무대 개막식에선 '전남 관광 유럽지역 누리소통망(SNS) 서포터즈 위촉식'이 열렸다.

위촉장을 받은 독일, 영국, 루마니아 등 유럽 8개국 20명의 서포터즈는 앞으로 전남관광을 누리소통망에 홍보하는 첨병 역할을 하게 된다.

전남도는 해외 관광객 300만명 유치를 위해 올해 5월부터 한국에 관심이 많고 소셜 미디어 활용에 익숙한 해외,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35개국 170여 명의 서포터즈를 모집했다.

이날 프랑크푸르트 위촉식을 시작으로 전남관광 글로벌 누리소통망 서포터즈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주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확대

광주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확대

광주시교육청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능 검사를 확대한다.

시교육청은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오는 28일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방사능 검사 대상은 수산물 7개 품목, 농산물 6개 품목 등 총 13건이다.

검사는 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업체를 직접 방문해 시료를 수거한 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사 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공개하고 전체 학교에도 통보된다.

또 시교육청은 관련기관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당초 계획된 검사 건수 65건에서 수산물 10건을 추가한 총 75건을 검사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최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이 지난 4월과 6월 농산물 18개 품목, 건어물 4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능 검사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슬비 기자

"변화와 혁신의 시대 지방공기업의 길 새롭게 모색하다"

한국지방공기업정책포럼 등 5개 단체, 순천시에서 합동세미나 성황



지방자치회와 (사)한국지방공기업정책포럼(23.5 행안부 승인), 전국지방공기업협의회(공사공단 37개), 서울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24개 공단), 경기도도시공사협의회(23개 도시공사) 등 5개 단체는, 직면한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협약을 맺는 한편, 지방공기업의 현안과 이슈를 심도있게 다루기 위한 합동 세미나를 최근 이틀간 순천국립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 지방공기업관 CEO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순천시 소재 순천 국립대에서 개최되었다.

홍윤식 (전)행정안전부 장관(현 연세대 교수)은 기조연설에서 "주민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제공 기관 지역발전의 중심기관으로 거듭나야 함"을 역설하였다.

순천=김승호 기자

한국연륜진흥재단
Korea Time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재민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연도	보험료부담	급여비	비율
5분위 고소득층	240,833원	125,531원	1.7배
4분위	125,531원	79,147원	2.1배
3분위	79,147원	48,103원	2.7배
2분위	48,103원	26,697원	5.3배
1분위 저소득층	26,697원	-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총량 129

국민건강보험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